

“가슴 따뜻한 치안 펼칠 터”

인물 포커스

서정순 보성경찰서장

1984년 꿈 많은 여고 졸업생이 우연히 경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운명처럼 35년 동안 민중의 지팡이로 근무하고 있는 보성경찰서 서정순 총경(53). 조직의 가장 말단 순경으로 입문해 여성으로서 남다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서울 은평서, 남대문서, 성북경찰서 등에서 여성청소년과장을 거치고 지난해 총경으로 승진했다. 그는 그동안 쌓은 현장경험과 내공을 통해 24시간 보성 지역치안의 현장을 끝까지 진두 지휘하고 있다. 보성경찰서 개청이래 74대 여성서장으로 첫 부임한 그를 만났다.

-서장 취임 후 그동안 느낌과 소감은.
▲취임 후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치안 방향을 설명하고 공동체치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장단회의, 마을회관, 경로당, 체육행사 등 주민이 모인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보성군민의 안전’이라는 치안목표를 달성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을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에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특히 내부조직 안정을 위해 경찰서 과·계장 및 파출소장들과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경찰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토론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치안활동 계획은.

▲보성군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1만5,428(18.7.30기준)명으로 35%를 차지해 어느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17년 인피교통사고 235건 중 노인교통사고가 97건에 40%를 차지하고 있고,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48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30명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취임 후 중점 업무 추진 방향은.

▲먼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에 우선하겠다.

기존 차량 소통 위주의 교통문화에서 벗어나 사람이 먼저인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무



신뢰 통해 주민 안전 최우선 목표 범죄·불법 엄정...사회 약자 보호 내부 소통·투명한 인사 관리 실현

엇보다 보성 지역 인구 특성을 감안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도록 현장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유연하고 투명한 단속을 위해 연중 단속 방침을 마련해 무인·캠코더 단속 중심으로 단속 장소(속도위반 등 법규위반 22개소)를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찾아가는 보성장날’ 시책을 통해 현장 교통안전관리에 집중해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 또한 하반기에는 군청협조를 받아 형량조기 500벌을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 추가보급을 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전개하겠다.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강력 범죄로 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젠더폭력 근절, 학대와 실종 대책 강화, 청소년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폭력법 14건, 가정폭력 40건 검거했다. 앞으로도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관할 파출소에 원하는 날짜, 시간에 집중순찰을 요청하는 ‘빈집사전예약 순찰제’ 등을 지속 실시해 범죄예방에도 힘쓰겠다.

이와 함께 여성 공중화장실 15개소 내비상 안심벨 100개를 추가 설치하고, 후미진 골목 등 7개소에 ‘솔라안심등’ 8대를 설치하는 등 범죄환경을 개선해 주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전 직원이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소통을 하면서 내부의 소리를 듣고 반영해 정성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이 대우 받을 수 있는 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 업무적으로는 범죄와 불법에는 당당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노인·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세심하고 따뜻하며, 유연한 법 집행을 해 줘야 좋겠다.

-지역민들에게 어떤 서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보성경찰서 개서 이래 일흔 세분의 경찰서장이 훌륭하게 소임을 다하셨다. 책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보성 경찰관 모두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역 단체와 공동체 치안을 통해 무난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내·외부적으로 소통하는 서장, 엄정하고 냉철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따뜻한 가슴과 밝은 미소를 지닌 서장으로 기억하도록 노력 하겠다.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시민이 곧 경찰이고 경찰이 곧 시민이다. 우리는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겠다.

‘혼자가면 빨리 갈 수는 있으나 멀리 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과 경찰이 한마음으로 공동체 치안을 해 나간다면 범죄뿐만 아니라 사고로부터도 지역과 지역주민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에 격려와 사랑을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충고,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는 따끔한 질책을 당부 드린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조기철 기자

광양 2020년 국고 건의사업 발굴

광양시가 2020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고 지원 건의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는 국·소장과 과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을 정현복 시장에게 보고했다.

정현복 시장은 각 사업별로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점검하면서 각 사업별로 부족한 부분은 보완토록 지시했다.

시가 이번 회의를 통해 발굴한 2020년 국고건의사업은 총 151건 1조 5,528억 원으로 2020년에는 1,977억

원 확보를 목표로 매년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이다.

발굴한 주요 사업은 ▲이순신 장군 호국타워 조성 사업 501억원 ▲이순신 호국항정 현충사업 463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330억원 ▲광양 섬진강 마리나 개발 208억 원 ▲광양을 향기를 그리는 도시숲길 조성사업 196억 원 ▲신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66억 원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60억원 등이다.

시는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점인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구례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탄력

구례군은 환경부에서 공모하는 2019년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에 선정돼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과 기반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2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준공한지 35년 이상된 구례·마산정수장을 통합 증설해 수질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정수장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공사 중인 문척·간전·토지정수장과 연계해 건설해 산동면을 제외한 군 전역의 수돗물 생산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군수를 비롯한 산하공무원이 환경부를 수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수도요금 현실화에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선정으로 노후상수관망과 노후정수장정비사업의 동시 추진이 가능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먹는 물은 군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시설이므로 군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상수도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

순천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신청

순천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찾아 선정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우수기업인증서와 인증패가 수여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고용환경개선자금으로 기업에 2,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순천시 소재 기업으로, 최근 1년간 일자

리 증가율이 5% 이상이고, 고용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시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실사 후 오는 12월 인증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일반 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해 순천시청 경제진흥과 일자리창출팀(문의 749-5750)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여수 ‘SNS 대상’ 수상...2년 연속

여수 이야기·힐링! 여수야 등 소통 노력 인정

여수시가 2018 대한민국 SNS 대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 기관에 선정돼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

으로 올해로 8회를 맞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행사를 후원한다.

‘여수이야기’와 ‘힐링! 여수야’ 등을 운영하는 여수시는 소셜미디어 영향력 지수(KoSBI)를 활용한 정량평가와 전문가평가, 국민 대상 이용자 투표에

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공식 SNS ‘여수이야기’와 관광전문 SNS ‘힐링! 여수야’를 통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과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여수이야기’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들과 지역의 다양

한 소식을 함께 만들어가며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카카오톡으로 생활 불편사항을 접수한 후 윈스톡으로 처리하는 민원 SNS 여수신문고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도 동일부문 대상을 받았고, 2016년에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행정을 펼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광양 어린이보육재단 발전전략 수립 보고회

광양시는 최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어린이보육재단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보육 현장 요구조사 분석 결과와 관계자 자문 등을 거쳐 검토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부 061 - 743-4200
- 여수 010-8648-1236
- 광양 010-3622-9898
- 순천 010-2547-7890
- 구례 010-5431-4006
- 곡성 010-6764-6100
- 고흥 010-9151-2828
- 보성 010-3601-2060

클릭! 고향 소식



광양희망도서관 견학 코스 인기

광양시는 지난해 시 최초로 개관한 어린이 전문 희망도서관이 아이들의 견학코스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희망도서관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견학프로그램은 지난 7개월 동안 1월과 8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총 201회 3,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정경화 기자



여수시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여수시가 내년도 지적재조사를 앞두고 사업지구인 화양읍적, 선원반월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달 4일은 화양 읍적리 마을회관, 5일은 선원동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지적재조사는 100년 전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새롭게 조사·측정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곡성명품농업대학 메론·양봉 육성

곡성군에서 운영 중인 제8기 곡성명품농업대학이 지역특화작목 전문 기술교육을 목표로 멜론, 양봉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멜론 과정은 지역농업발전과 고품질 멜론 소득을 위한 재배기술 향상, 양봉과정은 양봉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매년 우수졸업자를 선정, 농업CEO육성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한정길 기자



고흥군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고흥군은 지난달 28일 송곡군 고흥군수, 송우섭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사회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제13회 노인회장기 게이트볼 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주관, 고흥군 게이트볼협회가 후원한 행사로 총 34개 팀 220명이 참가했다. 송곡군 군수는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진준근 기자